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11 2016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마가복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충현의 만나

Contents

- 2 11월 일정표
- 4 매일묵상 사용안내
- 6 기도제목표
- 7 매일묵상 Q.T.
- 69 영어본문말씀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2016 Nov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17교구	2 2교구	3 18교구	4 1교구	5 전교인
6 전교인 제7차 성찬식	7 전교인	8 16교구	9 6교구	10 15교구	11 3교구	12 전교인
13 전교인	14 전교인	15 13교구	16 8교구	17 12교구	18 9교구	19 전교인
20 전교인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특별찬양예배	21 전교인	22 11교구	23 5교구	24 10교구	25 4교구	26 전교인
27 전교인	28 전교인	29 14교구	30 7교구			

교회 주요 일정

11월 6일(주일)	제7차 성찬식
11월 20일(주일)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특별찬양예배

제7차 성찬식

11월 20일(주일)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특별찬양예배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특별찬양예배

11월, 개인 전도 계획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et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새벽기도회의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 해설’과 ‘묵상 질문’, ‘적용 질문’의 형태로 구성된 ‘충현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

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적확(的確)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붙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 ① 어떠한 음부의 권세와 이단 세력도 흔들지 못하는 시온성과 같은 굳
건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총현교회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 ③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되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소서.
- ④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및 해당 교구 전도, 동역교회 전도 지원
사역에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동참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
소서.
- 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에 온 성도가 동참하여 가는 선교사, 보
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
워지게 하소서.
- ⑥ 각 교구와 부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 ⑦ 담임목사 청빙위원회가 철저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명을 온전히 감
당하게 하옵소서.
- ⑧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담임목사님이 청빙되도록 인도하소서.
- ⑨ 우리 사회에 만연한 퇴폐와 향락의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취게 하소서.
- ⑩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
하게 하시고, 남북통일이 복음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본문 마가복음 2:13~17 찬송가 280장

» 본문 해설

마태로 알려진 레위는 해롯을 위해 갈릴리로 통행하는 물건들에 관세를 징수하는 자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에 붙어서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의 돈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이방인들과 어울려 장로들의 규례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세리가 되면 그는 가정과 사회에서 추방되고 재판정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었고 회당에 나가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세리는 부도덕한 삶을 일삼는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의 규례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세리와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저하시키는 행위였으며 불경건한 태도였기에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죄인들과 식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세리를 향한 예수님의 친밀한 대화를 동반한 식사는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과 시간, 그리고 공간을 거룩한 것으로부터 천한 것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평가 기준에 따라 사람들은 종교지도자, 귀족, 평민, 종, 고아, 과부, 병자 순으로 사회적 레벨이 정해졌습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분하여 거룩하게 지켰고, 공간도 예루살렘, 성전, 회당, 집, 무덤 순으로 레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리, 병자,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관습화된 사회적 인간 피라미드 구조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거룩함과 비천함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다 거룩한 장소이며,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셨습니다. 비록 비천한 장소로서의 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실 때 그곳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소외된 자들을 향해 겸손으로 섬기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¹³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¹⁴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¹⁵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¹⁶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¹⁷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전통적인 규례를 따라 사는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 추구해야 할 삶이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금식 논쟁을 통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오직 한번 금식을 했습니다(레 23:26~32).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 금식의 횟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종교심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일 년에 한번 금식하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는 일주일에 2회(월요일, 목요일) 금식하였고 심지어는 2번도 부족하여 4번 이상을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 인한 민족적인 재난을 애도하기 위해 금식을 하였으며, 자기들의 신앙적인 헌신과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해 금식했습니다. 금식이 빈번해지면서 점차 강제적이고 형식적이며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정기적으로 행하는 자들을 종교심이 강한 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자들은 종교성이 떨어지는 자들로 규정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금식을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정기적으로 행하는 금식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잔치에 참석하여 연회를 즐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은 금식을 경건의 척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경건하지 못한 부류로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가지 비유(신랑의 비유, 생배 조각의 비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죽음 당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 기도 제목

나의 습관과 사고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편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¹⁹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²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²¹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

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²² 생베 조각을 낚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낚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²³ 새 포도주를 낚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본문 마가복음 2:23~28 찬송가 80장

》》 본문 해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밀밭 사이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길을 열면서 나아갈 때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23절). 모세의 법은 여행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남의 밭이나 논에서 열매를 따먹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손으로 따먹는 정도는 괜찮지만 낫을 가지고 와서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신 23:25).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예수님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며 항의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24절) 바리새인들이 이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삭을 자른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안식일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배고프고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줄 떡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는 진설병을 주었고 다윗은 떡을 받아서 부하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일로 인해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신 이유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부과한 234가지가 넘는 규례들 때문에 사람들은 안식일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일을 완성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으며, 그날을 인간의 유익을 위해 구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창 2:2, 출 20:8~11). 그러므로 이날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허락하신 안식과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 기도 제목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²³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²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 이까 ²⁵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²⁶ 그가 아비아달 대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²⁷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²⁸ 이렇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 못쓰게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이유를 찾기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에 위협이 있을 때만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손이 마른 자는 생명이 위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위반한 자로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손 마른 자를 볼 수 있도록 그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은가?”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비참에 대한 그들의 완악함에 깊이 슬퍼하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즉시 그 손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른 안식일 준수임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 가시니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유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과 대조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데 오히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 기도 제목

형식적 신앙관을 벗어나 버리고 참된 진리를 덧입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¹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² 사람들이 예수
 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
 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³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
 시고 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
 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
 이 잠잠하거늘 ⁵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
 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⁶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
 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⁷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
 가 따르며 ⁸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
 단 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
 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
 지라 ⁹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
 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가하도록 제자들에
 게 명하셨으니 ¹⁰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
 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
 자 하여 몰려왔음이라 ¹¹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
 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
 다 하니 ¹²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따로 열두 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눅 6:12~13)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둘을 따로 세우신 것은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시몬에게는 아랍어 ‘게바’의 헬라어 명칭인 ‘베드로’ (반석)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제’ (우리의 아들)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6:18).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여 준 그 뜻대로 초대교회의 반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며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28~29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예수님의 사역을 사악한 마음으로 악의적으로 귀신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거부한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기도 제목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마음과 행실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¹³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¹⁴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¹⁵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¹⁶ 이 열둘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¹⁷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¹⁸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대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¹⁹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²⁰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²¹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²²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

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²³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²⁴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²⁵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²⁶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²⁷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²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²⁹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³⁰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서 귀신 들렸다는 소문마저 나돌자(3:22), 친족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집 안에 있었으나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로 인해 밖에서 개인적인 면담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모친이며 나의 형제들이냐?”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여기서 ‘누구든지’ 라는 말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막 1:14~15).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이해하지 못했고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이적 행위를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육신적 가족의 불신앙적 모습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호명하시면서 부여한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게 그의 자녀들에게도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막 1:9~11).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명하도록 하셨습니다(마 6:9).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능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형제, 자매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주의 사랑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³¹ 그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³²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³³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³⁴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³⁵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결실을 하는 자니라

본문 마가복음 4:1~20 찬송가 204장

>>> 본문 해설

농부들은 봄이 되면,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면서 준비된 좋은 씨앗을 밭에 뿌립니다. 그러나 농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꼭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밭은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밭은 길 가, 흩어 얇은 돌밭, 가시떨기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땅의 공통적인 문제는 씨앗을 자기의 것으로 품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씨앗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좋은 땅은 씨앗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의 품에 소중히 품습니다. 그리고 씨앗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만큼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됩니다. 한편 좋은 밭이란 자신을 갈아엎는 수고와 교만의 돌과 유혹의 가시떨기를 뽑아내는 아픔이 전제된 밭입니다.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본문의 '씨뿌리는 자'는 '씨앗'을 '말씀'으로 규정한 것을 보아, 문맥상 일차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고, 부차적으로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씨앗' 곧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듣지만 들은 후 반응은 다양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 가운데에서도 분명 어떤 이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풍성한 것입니다(20절).

이는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에게 소중한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나 한편 이 비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경고와 도전의 메시지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네 종류의 밭들 중, 두 경우는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외적 압력과 내적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제자는 열매를 맺기 위해 말씀에 붙잡혀 순종하고 인내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여 결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¹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²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³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⁴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⁵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⁶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⁷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⁸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⁹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¹⁰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¹¹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¹²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¹³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¹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¹⁵ 말씀이 길 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¹⁶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¹⁷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¹⁸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¹⁹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²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사람들은 집 안을 비추기 위해 등불을 가져옵니다. 그러기에 등불을 말이나 평상 아래에 놓아서는 안되며, 높이 달린 등경과 같이 빛을 사방으로 비출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등불”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불이 빛을 비추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이적과 교훈을 통해 보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숨긴 것은 장차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정체와 그의 죽으심의 의미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 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세례식과 변화산상에서 하늘로부터 증명된 예수님의 정체는 그가 재림하실 때 만인 앞에 완전히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들인 자신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행위에 심판을 경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잃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능력과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적합한 의롭고 정결한 삶을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부적으로 우리 속에 싹트고 있는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워 이겨야 하며, 외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로 정치, 문화, 경제와 같은 모든 영역에 종사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통치 아래 들어오도록 의로운 영적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표현하는 성도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²¹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 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²²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²³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²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²⁵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²⁶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²⁷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²⁸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

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²⁹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³⁰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³¹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³²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³³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³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해가 저물 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항해는 갑작스런 풍랑에 의해 방해를 받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주변에 가파른 절벽과 협곡으로 둘러싸여 분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작은 바람이라도 계곡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면 큰 폭풍을 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저녁 이후에 부는 바람은 매우 강렬하여 엄청난 힘으로 수면을 치기 때문에 높은 파도를 일으켜서 배를 위협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몰아쳤던 폭풍이 바로 이러한 폭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위태로운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으로 자고 계신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에게 원망조로 하소연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풍랑 속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이심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본문과 요나 1장과는 상당 부분 주제적 상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나와 같은 선지자로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둘의 차이점을 암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나처럼 하늘을 향해 기도하지도 않으셨고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 물 속에 던져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권위로 풍랑이 잠잠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 번 나타내셨습니다.

》》 기도 제목

거친 풍랑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⁵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³⁶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³⁷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³⁸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³⁹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⁴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⁴¹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가가 이 이야기의 배경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라사는 데가볼리라고 불렸던 지역의 열 개 도시 가운데 하나로 갈릴리 동쪽에 위치하였고, 당시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까지 가신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선포 하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적은 신약 성경 안에서 다루어진 가장 길고 생생한 이적 기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귀신축출과 함께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방 영역에서도 역시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살던 무덤은 바위 속에 있는 동굴이었는데, 사람들은 가족의 일원이 귀신 들리면 그를 무덤에 고립시키고 그곳에서만 살게 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죽음의 영역에 속해 있던 그가 이제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라 이방인들은 무덤가에 앉아서 돼지고기를 먹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되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65장 1절에서 하나님은 훗날 자신을 찾지 않던 이방 지역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거라사 지역에 들어가신 것은 이사야 65장 1절의 예언에 대한 성취로서 지금 구원이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방 사람들에게도 도래하였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여 한 영혼을 더욱 귀히 여기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¹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²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³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⁴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⁵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⁶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⁷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⁸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⁹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¹⁰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¹¹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

는지라 ¹²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¹³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물사허거늘 ¹⁴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와서 ¹⁵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지켰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¹⁶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¹⁷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¹⁸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¹⁹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²⁰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아이로의 딸의 기사 중간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회당장이었던 아이로는 자기 딸이 거의 죽어가는 시점에서 예수님을 찾아 왔습니다(23절). 예수님은 그의 청을 듣고 그의 딸을 고치러 가시던 중이었으나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 괴로움을 당한 여인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부정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효험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중하던 차였습니다(26절). 그 괴로운 상황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 끼어들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가만히 손을 대었습니다(27~28절). 그녀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주님께에서 능력이 나가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자가 그 일을 오해한 채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녀를 불러 세워 구원과 병에서의 해방을 선포해 주셨습니다(33~3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일들의 성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서는 구원자로서 고립되고 소외된 사람의 불쌍한 형편을 돌아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정한 병'에 걸려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주님은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녀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일이 있을 때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여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지 말고 주님을 찾아와 그 문제의 해결을 구할 때 주님께서 가장 좋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의 그 긍휼의 은혜 앞에 내 문제들을 내려 놓게 하옵소서.

²⁸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²⁹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³⁰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³¹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³²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³³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³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³⁵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리라 ³⁶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³⁷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³⁸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³⁹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⁴⁰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 ⁴¹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이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이로의 인도에 따라 그의 집으로 가시던 도중에 그녀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25절).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아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의 믿음은 여전히 죽은 소녀를 애도하기 위하여 이미 모인 사람들의 통곡하는 소리에 다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믿지 못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어 보내시고 그녀의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소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달리다굼(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36~41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놀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라고 경고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소녀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은 그 소녀가 실제로 살아났고, 육신을 떠난 영혼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39~43절).

마가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 4가지 연속된 악(풍랑, 귀신들림, 질병,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 네 가지 악에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은 아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은 앞의 3가지(풍랑, 귀신들림, 질병)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원수에게도 승리하심으로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아무도 거역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원수를 타파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란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와 용기를 줍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악의 세력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³⁵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³⁶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³⁷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³⁸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³⁹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

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⁴⁰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⁴¹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⁴²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⁴³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6절까지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이고 7~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 각 고읍으로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선 1~6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셨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느 모로 보나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든 이렇다 할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으며, 나사렛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며 배척했습니다(3절). 특별히 2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은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 거의 모든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였음을 보여 줍니다. 다음으로 7~13절까지 내용을 보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열두 명의 제자들을 부르사 예수님을 대신하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자신과 동일한 권세(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를 주셨고, 동일한 의지처(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성부 하나님)를 가지게 하셨으며, 동일한 계획(회개를 선포하고 병을 고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고향의 친구들, 가족들, 고향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 복음이 더 먼 곳으로 확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으로 생명력 있게 움직여 확산됩니다.

>>> 기도 제목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¹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²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³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⁵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⁶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⁷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⁸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⁹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고 ¹⁰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¹¹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¹²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¹³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은 비록 왕이라 불리웠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그는 분봉 왕(나라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주권을 행사하는 영주)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혼인하였고, 이 결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비난을 하였습니다(17~18절). 이 일로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생각하여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요한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것은 헤롯의 생일을 맞이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을 기쁘게 하였고, 헤롯에게 어떤 소원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다. 이에 헤로디아는 자기의 어린 딸 살로매를 사주하여 요한의 목숨을 헤롯에게 요구했습니다. 헤롯은 심히 근심하였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19~28절). 오늘 말씀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요한의 죽음이 장차 있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전주곡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한 시대를 마감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히 드러나려면 주님의 길잡이였던 세례 요한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의인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 하나님이 깊으신 뜻으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놀라운 분입니다.

»» 기도 제목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신뢰하며 성도로서 살게 하옵소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⁵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⁶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베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⁷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⁸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⁹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¹⁰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¹¹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¹² 헤로디아의 딸이 찬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¹³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¹⁴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¹⁵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¹⁶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¹⁷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¹⁸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¹⁹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궁지에 처할 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현실의 필요를 전혀 충당할 수 없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돌아보사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30~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쉴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주님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서 따로 떨어져 나와 조용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쉼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32~34절을 보면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고 굶주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목자 없는 양'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아 백성들이 큰 위험에 빠졌을 때 언급되는 표현입니다(민 27:17, 왕상 22:17).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배부름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35~41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서는 무리들에게 영적인 양식인 말씀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인 떡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에 제자들의 손길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더불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은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42~44절에 주님이 배푸신 이적은 수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주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분을 믿음으로 따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 기도 제목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³⁰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³¹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³²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³³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 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³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³⁵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³⁶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³⁷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

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³⁸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라 하거늘 ³⁹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⁴⁰ 떼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⁴¹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⁴² 다 배불리 먹고 ⁴³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⁴⁴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 었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벧새다로 가게 하시고 본인은 무리와 작별하시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45~46절). 하지만 날은 저물고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때 주님은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며 소리를 지르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고 위로해 주시며, 배에 오르시고 그들과 함께 가시매 바다의 바람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48~51절). 제자들은 마음이 둔하여져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믿은 수많은 병자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 병에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51~5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광야를 떠나셨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리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람의 인정의 욕구에 집중하는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사람입니까? 둘째는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음이 둔하여져서 자신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풍랑에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찾아오신 주님에게 있습니까? 혹시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는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금 힘과 용기를 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 기도 제목

세상에 시선을 빼앗겨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옵소서.

⁴⁶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새다로 가게 하시고 ⁴⁶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⁴⁷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⁴⁸ 바람이 거스르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⁴⁹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⁵⁰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⁵¹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⁵²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⁵³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⁵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⁵⁵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 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⁵⁶ 아무 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예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변론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발단이 되어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고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참된 정결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 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정결법을 복잡하게 확대 적용하여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법을 아는 자들만이 이 특권을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장로의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르반” 제도입니다.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부모 공경에 대한 율법의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세운 규례인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모 공경의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근본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완전히 저버린 일입니다(3~13절). 종교지도자들의 외식을 책망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14절) 당시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밝히 말씀하시면서 참된 정결법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19~23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성도의 삶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세운 규칙과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성도의 삶은 겉으로만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죄악으로 물들어 썩어 부패된 회칠한 무덤과 같지 않은지 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힘써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나를 위한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힘써 돌보아 진정한 성도의 거룩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¹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²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³(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⁴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닢그릇을 씻음 이러라)⁵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⁶이르시되 이사가야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도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⁷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⁸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⁹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¹⁰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¹¹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¹²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¹³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고 ¹⁴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¹⁵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¹⁶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¹⁷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바유를 묻자온대 ¹⁸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¹⁹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²⁰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²¹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²²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²³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 이방 지역으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24절). 이 때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지역에 가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25~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 구원해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하신 태도는 얼핏 보면 매우 거칠고 심지어는 무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개”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 자신을 바로 이해하고 있고 또 믿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도 전혀 포기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하지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구원해 주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당시 율법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믿음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육과 전통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먼저 참여할 기회를 얻었으면서도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하지만 개와 같은 이방 여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간구를 하였고 예수님께서 그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기꺼이 그 잔치 상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 내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그 믿음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²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²⁵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²⁶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²⁷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

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²⁸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²⁹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³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두로 지방을 나와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31~32절). 예수님께서서는 손가락을 병자의 두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며 깊은 탄식으로 그에게 “에바다(열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과 동시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33~35절). 이 기적을 행하신 후 주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사람들은 더욱 널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전파하였습니다(36~37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주님은 이방인이었던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해 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깊은 탄식으로 그에게 ‘에바다’라고 외치시며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처럼 무력하기 그지 없는 인생을 살던 내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굳게 닫힌 내 마음의 문을 ‘에바다’라고 말씀하셔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맺힌 것을 풀어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셀 수 없는 긍휼하심입니다. 둘째는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널리 전파하고(36절),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심히 놀란 것일까요?(37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선언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음을 안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기도 제목

우리의 굳은 마음이 열려서 진정한 메시아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³¹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³²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³³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³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예

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³⁵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뻗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³⁶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³⁷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로 광야에서 사천 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일곱 광주리나 남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마가복음 6장 35절~44절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두 본문을 같은 사건에 대한 두 개의 번역으로 보는데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전자는 유대인이 살던 유대 지역에서 행하신 기적이고, 오늘 본문은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에서 온 무리를 먹이신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풍성한 꼴을 먹이게 하심으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길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1~3절). 예수님을 만나러 온 자들 중에서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이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르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채우길 원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 작은 칠병이어로 황량한 광야에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6~10절).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통과 핍질이 있습니까? 빈 들을 잔칫집으로 풍성하게 바꾸셨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풍성히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¹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
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²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
이 없도다 ³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⁴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
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⁵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

로소이다 하거늘 ⁶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⁷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
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⁸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
었으며 ⁹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
서 그들을 흠어 보내시고 ¹⁰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탄식하셨을까요? 자신들 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한 그에게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으니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단순히 바리새인들에게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배에 올라탄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떡이 없어서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누룩에 비유하시며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지 않으시고, 직접 손을 대시기를 원하시며, 침을 뱉고, 2번이나 안수하여 그의 눈을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영적인 소경과 후에는 육체적 소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한번에 고치시지 않으시고, 2번에 걸쳐 소경을 고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눈 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오신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온전히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벳새다의 맹인을 통하여 그들의 상태를 반추해 보도록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과 순전함으로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아 볼 수 있을까요? 나와 늘 동행하는 분이 어떠한 분으로 보이시나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요? 매일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으며 그분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나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 영적인 눈을 들어 바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¹¹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¹²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¹³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¹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¹⁵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¹⁶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를 아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라 하거늘 ¹⁷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나 ¹⁸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

느냐 ¹⁹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열둘이니이다 ²⁰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²¹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²² 뱃새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²³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²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ना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²⁵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느니라 ²⁶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질문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막 1:1). 제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였고 그 중 베드로의 대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베드로일지라도 예수님의 꾸짖으심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항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주님은 공생애 기간에 이루셔야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길 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나요?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무엇을 쫓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주님은 이 세대 속에서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쫓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따라가야 하는 여정을 믿음으로 받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나에게 생명을 주시게 위해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데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²⁷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²⁸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²⁹ 또 물으시되 너화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³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³¹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³²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³³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

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³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³⁵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³⁶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³⁷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³⁸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곳에 안주하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위를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최고의 인물이며, 엘리야는 구원의 약속된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마가복음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본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보아야 했고, 그분의 영광을 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세상의 문제가 더 커 보이며, 구원자, 창조자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급급한 우리이지는 않나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믿고 있는 분의 신분을 정확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누구이신지, 그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어떠한 직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분과 지위를 기억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오늘 하루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¹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²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³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기를 ⁵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⁶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⁷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⁸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던더라 ⁹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¹⁰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¹¹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¹²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열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¹³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은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론 중에 있는 서기관들과 제자들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변론하는지를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귀신이 들린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고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고치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고치려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까지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진단을 '기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히 11:6).

성도인 우리는 많은 순간 자신이 항상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과정은 어떠한지를 되돌아보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히 들여다보시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남편과 아내? 부모님? 자녀? 돈과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정말 믿음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중보자 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나의 믿음이 누구를 향해 있나요? 주님,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¹⁶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¹⁷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¹⁸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¹⁹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²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²¹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²²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²³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²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²⁵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²⁶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²⁷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²⁸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²⁹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³⁰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³¹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논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논쟁의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높아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맞이들이는 것이 나를 맞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자신을 맞이들이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을 맞는 것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쫓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높아지기를 원하나요? 낮아지기를 원하나요? 우리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하나요? 어린 아이 같이 인정받지 못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나요?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지들과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높아지고, 인정받으려 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사모하는 마음 말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를 쫓고, 그분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넘쳐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³⁰ 그 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³¹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삼 일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³²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³³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게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³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

나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³⁵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³⁶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³⁷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यो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요한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 그 이유를 내 이름을 의탁해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우리를 위하는 자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고 설명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서로 화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50절). 독단과 독선을 버리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않고, 손, 발, 눈이 죄를 범하게 하면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신체의 일부를 베어버리는 결단력으로 그들의 독선과 배타심을 과감히 떨쳐버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권력과 자신들의 욕심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그룹에 속해 있지 않는 자들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우월감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며, 화목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그룹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은 없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상대를 멈추게 하는 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은 없었나요? 예수님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분명하게 외치십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이 화목의 능력을 상실하고 독선과 배타심에 사로잡혀 한 사람을 실족시키고 있었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막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요? 우리의 욕심으로 잃어버린 소금의 맛을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성도로 살며, 시기하고 분내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³⁸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³⁹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⁴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⁴¹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⁴²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뱃들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⁴³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⁴⁴ (없음) ⁴⁵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⁴⁶ (없음) ⁴⁷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⁴⁸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⁴⁹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차듯 함을 받으리라 ⁵⁰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냐고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혼이 허락이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율법에 왜 이혼을 허락했는지를 그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결혼 목적이 철저히 무시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지만 결국 그들은 오히려 결혼의 신성한 모습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얼마나 허망한 질문인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계속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묻고 그들은 그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인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율법을 대해서 모르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구절은 피조물 된 인간으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 기도 제목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어, 성경 속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²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³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⁴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⁵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⁶창조 때로

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⁷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⁸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⁹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¹⁰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¹¹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인도 ¹²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만져 주시기 위하여 데리고 갔지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자는 자신이 여러 가지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의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을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서,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좇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당하실 수난과 죽음의 현장 끝까지 따라 올 것을 암시적으로 교훈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무엇인가 보상을 얻으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나요? 실제로 제자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인 우리는 그에 대한 값을 치르려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믿을 더하여 주옵소서.

¹³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¹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¹⁵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¹⁶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¹⁷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¹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¹⁹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²⁰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²¹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²²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²³ 예수께서 둘러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²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²⁵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²⁶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²⁷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²⁸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²⁹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³⁰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³¹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수난을 당하고 죽을 것과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소원을 아뢰면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서 왕권을 회복하는 장면을 머리에 그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3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고 책망하시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늘 영광만 구하고 있는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45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입술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같은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삶을 깊이 뒤돌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섬기려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우리도 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³²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³³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³⁴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³⁵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³⁶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³⁷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³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

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³⁹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⁴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⁴¹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⁴²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⁴³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⁴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⁴⁵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바디매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결론과 같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늘 자신의 영적인 무지함에 머물러 있어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수난을 이야기 하셨지만, 늘 자신들의 영광만을 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기 원하셨습니다. 바디매오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외침과 '불쌍히 여겨 달라'는 외침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바디매오는 육적인 눈은 감겨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밝아 예수님의 신분을 명확히 보고 있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매일 우리의 눈은 무엇을 식별하고 있나요? 영적인 것을 보고 있나요? 육적인 것을 보고 있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구하지 않을 때가 더욱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 찾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 돈이, 명예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가 차지하고 있을 때가 더욱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불러야 할 대상, 찾아야 할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때가 더욱 많이 있습니다. 맹인 바디매오가 밝은 영안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분별력이 있는 영적인 눈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 맹인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맹인인가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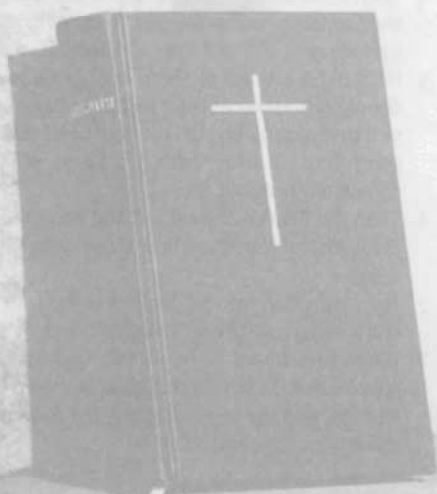
⁴⁶ 그들이 예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 가에 앉았다가 ⁴⁷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⁴⁸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⁴⁹ 예수께서 머물러 서

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⁵⁰ 맹인이 겹옷을 내버리고 뛰어들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⁵¹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⁵²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성경공부 영어본문말씀



11월 1일 화요일

Mark 2:13~17

- 13 Once again Jesus went out beside the lake. A large crowd came to him, and he began to teach them.
- 14 As he walked along, he saw Levi son of Alphaeus sitting at the tax collector's booth. "Follow me," Jesus told him, and Levi got up and followed him.
- 15 While Jesus was having dinner at Levi's house, many tax collectors and "sinners" were eating with him and his disciples, for there were many who followed him.
- 16 When the teachers of the law who were Pharisees saw him eating with the "sinners" and tax collectors, they asked his disciples: "Why does he eat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 17 On hearing this, Jesus said to them,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 a doctor, but the sick.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11월 2일 수요일

Mark 2:18~22

- 18 Now John's disciples and the Pharisees were fasting. Some people came and asked Jesus, "How is it that John's disciples and the disciples of the Pharisees are fasting, but yours are not?"
- 19 Jesus answered, "How can the guests of the bridegroom fast while he is with them? They cannot, so long as they have him with them.
- 20 But the time will come when the bridegroom will be taken from them, and on that day they will fast.
- 21 "No one sews a patch of unshrunk cloth on an old garment. If he does, the new piece will pull away from the old, making the tear worse.
- 22 And no one pours new wine into old wineskins. If he does, the wine will burst the skins, and both the wine and the wineskins will be ruined. No, he pours new wine into new wineskins."

11월 3일 목요일

Mark 2:23~28

- 23 One Sabbath Jesus was going through the grainfields, and as his disciples walked along, they began to pick some heads of grain.
- 24 The Pharisees said to him, "Look, why are they doing what is unlawful on the Sabbath?"
- 25 He answered, "Have you never read what David did when he and his companions were hungry and in need?
- 26 In the days of Abiathar the high priest, he entered the house of God and ate the consecrated bread, which is lawful only for priests to eat. And he also gave some to his companions."
- 27 Then he said to them, "The Sabbath was made for man, not man for the Sabbath.
- 28 So the Son of Man is Lord even of the Sabbath."

11월 4일 금요일

Mark 3:1~12

- 1 Another time he went into the synagogue, and a man with a shriveled hand was there.
- 2 Some of them were looking for a reason to accuse Jesus, so they watched him closely to see if he would heal him on the Sabbath.
- 3 Jesus said to the man with the shriveled hand, "Stand up in front of everyone."
- 4 Then Jesus asked them, "Which is lawful on the Sabbath: to do good or to do evil, to save life or to kill?" But they remained silent.
- 5 He looked around at them in anger and, deeply distressed at their stubborn hearts, said to the man, "Stretch out your hand." He stretched it out, and his hand was completely restored.
- 6 Then the Pharisees went out and began to plot with the Herodians how they might kill Jesus.
- 7 Jesus withdrew with his disciples to the lake, and a large crowd from Galilee followed.
- 8 When they heard all he was doing, many people came to him from Judea, Jerusalem, Idumea, and the regions across the Jordan and around Tyre and Sidon.

- 9 Because of the crowd he told his disciples to have a small boat ready for him, to keep the people from crowding him.
- 10 For he had healed many, so that those with diseases were pushing forward to touch him.
- 11 Whenever the evil spirits saw him, they fell down before him and cried out, "You are the Son of God."
- 12 But he gave them strict orders not to tell who he was.

11월 5일 토요일

Mark 3:13~30

- 13 Jesus went up on a mountainside and called to him those he wanted, and they came to him.
- 14 He appointed twelve--designating them apostles--that they might be with him and that he might send them out to preach
- 15 and to have authority to drive out demons.
- 16 These are the twelve he appointed: Simon (to whom he gave the name Peter
- 17 James son of Zebedee and his brother John (to them he gave the name Boanerges, which means Sons of Thunder
- 18 Andrew, Philip, Bartholomew, Matthew, Thomas, James son of Alphaeus, Thaddaeus, Simon the Zealot
- 19 and Judas Iscariot, who betrayed him.
- 20 Then Jesus entered a house, and again a crowd gathered, so that he and his disciples were not even able to eat.
- 21 When his family heard about this, they went to take charge of him, for they said, "He is out of his mind."
- 22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ho came down from Jerusalem said, "He is possessed by Beelzebub! By the prince of demons he is driving out demons."
- 23 So Jesus called them and spoke to them in parables: "How can Satan drive out Satan?"
- 24 If a kingdom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kingdom cannot stand.
- 25 If a house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house cannot stand.
- 26 And if Satan opposes himself and is divided, he cannot stand; his end has come.

- 27 In fact, no one can enter a strong man's house and carry off his possessions unless he first ties up the strong man. Then he can rob his house.
- 28 I tell you the truth, all the sins and blasphemies of men will be forgiven them.
- 29 But whoever blasphemes against the Holy Spirit will never be forgiven; he is guilty of an eternal sin."
- 30 He said this because they were saying, "He has an evil spirit."

11월 6일 주일

Mark 3:31~35

- 31 Then Jesus' mother and brothers arrived. Standing outside, they sent someone in to call him.
- 32 A crowd was sitting around him, and they told him, "Your mother and brothers are outside looking for you."
- 33 "Who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he asked.
- 34 Then he looked at those seated in a circle around him and said, "Here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 35 Whoever does God's will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11월 7일 월요일

Mark 4:1~20

- 1 Again Jesus began to teach by the lake. The crowd that gathered around him was so large that he got into a boat and sat in it out on the lake, while all the people were along the shore at the water's edge.
- 2 He taught them many things by parables, and in his teaching said:
- 3 "Listen! A farmer went out to sow his seed.
- 4 As he was scattering the seed, some fell along the path, and the birds came and ate it up.
- 5 Some fell on rocky places, where it did not have much soil. It sprang up quickly, because the soil was shallow.
- 6 But when the sun came up, the plants were scorched, and they withered because they had no root.

- 7 Other seed fell among thorns, which grew up and choked the plants, so that they did not bear grain.
- 8 Still other seed fell on good soil. It came up, grew and produced a crop, multiplying thirty, sixty, or even a hundred times."
- 9 Then Jesus said,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 10 When he was alone, the Twelve and the others around him asked him about the parables.
- 11 He told them, "The secret of the kingdom of God has been given to you. But to those on the outside everything is said in parables so that, " 'they may be ever seeing but never perceiving, and ever hearing but never understanding; otherwise they might turn and be forgiven!'"
- 13 Then Jesus said to them, "Don't you understand this parable? How then will you understand any parable?
- 14 The farmer sows the word.
- 15 Some people are like seed along the path, where the word is sown. As soon as they hear it, Satan comes and takes away the word that was sown in them.
- 16 Others, like seed sown on rocky places, hear the word and at once receive it with joy.
- 17 But since they have no root, they last only a short time. When trouble or persecution comes because of the word, they quickly fall away.
- 18 Still others, like seed sown among thorns, hear the word;
- 19 but the worries of this life, the deceitfulness of wealth and the desires for other things come in and choke the word, making it unfruitful.
- 20 Others, like seed sown on good soil, hear the word, accept it, and produce a crop--thirty, sixty or even a hundred times what was sown."

11월 8일 화요일

Mark 4:21~34

- 21 He said to them, "Do you bring in a lamp to put it under a bowl or a bed? Instead, don't you put it on its stand?"
- 22 For whatever is hidden is meant to be disclosed, and whatever is concealed is meant to be brought out into the open.
- 23 If anyone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 24 "Consider carefully what you hear," he continued.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and even more.
- 25 Whoever has will be given more;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from him."
- 26 He also said, "This is what the kingdom of God is like. A man scatters seed on the ground.
- 27 Night and day, whether he sleeps or gets up, the seed sprouts and grows, though he does not know how.
- 28 All by itself the soil produces grain--first the stalk, then the head, then the full kernel in the head.
- 29 As soon as the grain is ripe, he puts the sickle to it, because the harvest has come."
- 30 Again he said, "What shall we say the kingdom of God is like, or what parable shall we use to describe it?
- 31 It is like a mustard seed, which is the smallest seed you plant in the ground.
- 32 Yet when planted, it grows and becomes the largest of all garden plants, with such big branches that the birds of the air can perch in its shade."
- 33 With many similar parables Jesus spoke the word to them, as much as they could understand.
- 34 He did not say anything to them without using a parable. But when he was alone with his own disciples, he explained everything.

11월 9일 수요일

Mark 4:35~41

- 35 That day when evening came, he said to his disciples, "Let us go over to the other side."
36 Leaving the crowd behind, they took him along, just as he was, in the boat. There were also other boats with him.
37 A furious squall came up, and the waves broke over the boat, so that it was nearly swamped.
38 Jesus was in the stern, sleeping on a cushion. The disciples woke him and said to him, "Teacher, don't you care if we drown?"
39 He got up, rebuked the wind and said to the waves, "Quiet! Be still!" Then the wind died down and it was completely calm.
40 He said to his disciples, "Why are you so afraid? Do you still have no faith?"
41 They were terrified and asked each other, "Who is this? Even the wind and the waves obey him!"

11월 10일 목요일

Mark 5:1~20

- 1 They went across the lake to the region of the Gerasenes.
2 When Jesus got out of the boat, a man with an evil spirit came from the tombs to meet him.
3 This man lived in the tombs, and no one could bind him any more, not even with a chain.
4 For he had often been chained hand and foot, but he tore the chains apart and broke the irons on his feet. No one was strong enough to subdue him.
5 Night and day among the tombs and in the hills he would cry out and cut himself with stones.
6 When he saw Jesus from a distance, he ran and fell on his knees in front of him.
7 He shouted at the top of his voice, "What do you want with me, Jesus, Son of the Most High God? Swear to God that you won't torture me!"
8 For Jesus had said to him, "Come out of this man, you evil spirit!"

- 9 Then Jesus asked him,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Legion," he replied, "for we are many."
10 And he begged Jesus again and again not to send them out of the area.
11 A large herd of pigs was feeding on the nearby hillside.
12 The demons begged Jesus, "Send us among the pigs; allow us to go into them."
13 He gave them permission, and the evil spirits came out and went into the pigs. The herd, about two thousand in number, rushed down the steep bank into the lake and were drowned.
14 Those tending the pigs ran off and reported this in the town and countryside, and the people went out to see what had happened.
15 When they came to Jesus, they saw the man who had been possessed by the legion of demons, sitting there, dressed and in his right mind; and they were afraid.
16 Those who had seen it told the people what had happened to the demon-possessed man--and told about the pigs as well.
17 Then the people began to plead with Jesus to leave their region.
18 As Jesus was getting into the boat, the man who had been demon-possessed begged to go with him.
19 Jesus did not let him, but said, "Go home to your family and tell them how much the Lord has done for you, and how he has had mercy on you."
20 So the man went away and began to tell in the Decapolis how much Jesus had done for him. And all the people were amazed.

11월 11일 금요일

Mark 5:21~34

- 21 When Jesus had again crossed over by boat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a large crowd gathered around him while he was by the lake.
- 22 Then one of the synagogue rulers, named Jairus, came there. Seeing Jesus, he fell at his feet
- 23 and pleaded earnestly with him, "My little daughter is dying. Please come and put your hands on her so that she will be healed and live."
- 24 So Jesus went with him. A large crowd followed and pressed around him.
- 25 And a woman was there who had been subject to bleeding for twelve years.
- 26 She had suffered a great deal under the care of many doctors and had spent all she had, yet instead of getting better she grew worse.
- 27 When she heard about Jesus, she came up behind him in the crowd and touched his cloak,
- 28 because she thought, "If I just touch his clothes, I will be healed."
- 29 Immediately her bleeding stopped and she felt in her body that she was freed from her suffering.
- 30 At once Jesus realized that power had gone out from him. He turned around in the crowd and asked, "Who touched my clothes?"
- 31 "You see the people crowding against you," his disciples answered, "and yet you can ask, 'Who touched me?'"
- 32 But Jesus kept looking around to see who had done it.
- 33 Then the woman, knowing what had happened to her, came and fell at his feet and, trembling with fear, told him the whole truth.
- 34 He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healed you. Go in peace and be freed from your suffering."

11월 12일 토요일

Mark 5:35~43

- 35 While Jesus was still speaking, some men came from the house of Jairus, the synagogue ruler. "Your daughter is dead," they said. "Why bother the teacher any more?"
- 36 Ignoring what they said, Jesus told the synagogue ruler, "Don't be afraid; just believe."
- 37 He did not let anyone follow him except Peter, James and John the brother of James.
- 38 When they came to the home of the synagogue ruler, Jesus saw a commotion, with people crying and wailing loudly.
- 39 He went in and said to them, "Why all this commotion and wailing? The child is not dead but asleep."
- 40 But they laughed at him. After he put them all out, he took the child's father and mother and the disciples who were with him, and went in where the child was.
- 41 He took her by the hand and said to her, "Talitha koum!" (which means, "Little girl, I say to you, get up!").
- 42 Immediately the girl stood up and walked around (she was twelve years old). At this they were completely astonished.
- 43 He gave strict orders not to let anyone know about this, and told them to give her something to eat.

11월 13일 주일

Mark 6:1~13

- 1 Jesus left there and went to his hometown, accompanied by his disciples.
- 2 When the Sabbath came, he began to teach in the synagogue, and many who heard him were amazed. "Where did this man get these things?" they asked. "What's this wisdom that has been given him, that he even does miracles!"
- 3 Isn't this the carpenter? Isn't this Mary's son and the brother of James, Joseph, Judas and Simon? Aren't his sisters here with us?" And they took offense at him.
- 4 Jesus said to them, "Only in his hometown, among his relatives and in his own house is a prophet without honor."

- 5 He could not do any miracles there, except lay his hands on a few sick people and heal them.
- 6 And he was amazed at their lack of faith. Then Jesus went around teaching from village to village.
- 7 Calling the Twelve to him, he sent them out two by two and gave them authority over evil spirits.
- 8 These were his instructions: "Take nothing for the journey except a staff--no bread, no bag, no money in your belts.
- 9 Wear sandals but not an extra tunic.
- 10 Whenever you enter a house, stay there until you leave that town.
- 11 And if any place will not welcome you or listen to you, shake the dust off your feet when you leave, as a testimony against them."
- 12 They went out and preached that people should repent.
- 13 They drove out many demons and anointed many sick people with oil and healed them.

11월 14일 월요일

Mark 6:14~29

- 14 King Herod heard about this, for Jesus' name had become well known. Some were saying, "John the Bapt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and that is why miraculous powers are at work in him."
- 15 Others said, "He is Elijah." And still others claimed, "He is a prophet, like one of the prophets of long ago."
- 16 But when Herod heard this, he said, "John, the man I beheaded,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 17 For Herod himself had given orders to have John arrested, and he had him bound and put in prison. He did this because of Herodias, his brother Philip's wife, whom he had married.
- 18 For John had been saying to Herod, "It is not lawful for you to have your brother's wife."
- 19 So Herodias nursed a grudge against John and wanted to kill him. But she was not able to,

- 20 because Herod feared John and protected him, knowing him to be a righteous and holy man. When Herod heard John, he was greatly puzzled; yet he liked to listen to him.
- 21 Finally the opportune time came. On his birthday Herod gave a banquet for his high officials and military commanders and the leading men of Galilee.
- 22 When the daughter of Herodias came in and danced, she pleased Herod and his dinner guests. The king said to the girl, "Ask me for anything you want, and I'll give it to you."
- 23 And he promised her with an oath, "Whatever you ask I will give you, up to half my kingdom."
- 24 She went out and said to her mother, "What shall I ask for?"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she answered.
- 25 At once the girl hurried in to the king with the request: "I want you to give me right now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on a platter."
- 26 The king was greatly distressed, but because of his oaths and his dinner guests, he did not want to refuse her.
- 27 So he immediately sent an executioner with orders to bring John's head. The man went, beheaded John in the prison,
- 28 and brought back his head on a platter. He presented it to the girl, and she gave it to her mother.
- 29 On hearing of this, John's disciples came and took his body and laid it in a tomb.

11월 15일 화요일

Mark 6:30~44

- 30 The apostles gathered around Jesus and reported to him all they had done and taught.
- 31 Then, because so many people were coming and going that they did not even have a chance to eat, he said to them, "Come with me by yourselves to a quiet place and get some rest."
- 32 So they went away by themselves in a boat to a solitary place.
- 33 But many who saw them leaving recognized them and ran on foot from all the towns and got there ahead of them.

34 When Jesus landed and saw a large crowd, he had compassion on them, because they were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So he began teaching them many things.

35 By this time it was late in the day, so his disciples came to him. "This is a remote place," they said, "and it's already very late."

36 Send the people away so they can go to the surrounding countryside and villages and buy themselves something to eat."

37 But he answered,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They said to him, "That would take eight months of a man's wages! Are we to go and spend that much on bread and give it to them to eat?"

38 "How many loaves do you have?" he asked. "Go and see." When they found out, they said, "Five--and two fish."

39 Then Jesus directed them to have all the people sit down in groups on the green grass.

40 So they sat down in groups of hundreds and fifties.

41 Taking the five loaves and the two fish and looking up to heaven, he gave thanks and broke the loaves. Then he gave them to his disciples to set before the people. He also divided the two fish among them all.

42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and the disciples picked up twelve basketfuls of broken pieces of bread and fish.

43 The number of the men who had eaten was five thousand.

11월 16일 수요일

Mark 6:45~56

45 Immediately Jesus made his disciples get into the boat and go on ahead of him to Bethsaida, while he dismissed the crowd.

46 After leaving them, he went up on a mountainside to pray.

47 When evening came, the boat was in the middle of the lake, and he was alone on land.

48 He saw the disciples straining at the oars, because the wind was against them. About the fourth watch of the night he went out to them, walking on the lake. He was about

to pass by them,

49 but when they saw him walking on the lake, they thought he was a ghost. They cried out, because they all saw him and were terrified. Immediately he spoke to them and said,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51 Then he climbed into the boat with them, and the wind died down. They were completely amazed,

52 for they had not understood about the loaves; their hearts were hardened.

53 When they had crossed over, they landed at Gennesaret and anchored there.

54 As soon as they got out of the boat, people recognized Jesus.

55 They ran throughout that whole region and carried the sick on mats to wherever they heard he was.

56 And wherever he went--into villages, towns or countryside--they placed the sick in the marketplaces. They begged him to let them touch even the edge of his cloak, and all who touched him were healed.

11월 17일 목요일

Mark 7:1~23

1 The Pharisees and some of the teachers of the law who had come from Jerusalem gathered around Jesus and

2 saw some of his disciples eating food with hands that were "unclean," that is, unwashed.

3 (The Pharisees and all the Jews do not eat unless they give their hands a ceremonial washing, holding to the tradition of the elders.

4 When they come from the marketplace they do not eat unless they wash. And they observe many other traditions, such as the washing of cups, pitchers and kettles.)

5 So the Pharisees and teachers of the law asked Jesus, "Why don't your disciples live according to the tradition of the elders instead of eating their food with 'unclean' hands?"

6 He replied, "Isaiah was right when he prophesied about you hypocrites; as it is written: 'These people honor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s are far from me.

7 They worship me in vain; their teachings are but rules taught by men.'

8 You have let go of the commands of God and are holding on to the traditions of men."

9 And he said to them: "You have a fine way of setting aside the commands of God in order to observe your own traditions!

10 For Moses said,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and, 'Anyone who curses his father or mother must be put to death.'

11 But you say that if a man says to his father or mother: 'Whatever help you might otherwise have received from me is Corban' (that is, a gift devoted to God),

12 then you no longer let him do anything for his father or mother.

13 Thus you nullify the word of God by your tradition that you have handed down. And you do many things like that."

14 Again Jesus called the crowd to him and said, "Listen to me, everyone, and understand this.

15 Nothing outside a man can make him 'unclean' by going into him. Rather, it is what comes out of a man that makes him 'unclean.'"

16

17 After he had left the crowd and entered the house, his disciples asked him about this parable.

18 "Are you so dull?" he asked. "Don't you see that nothing that enters a man from the outside can make him 'unclean'?

19 For it doesn't go into his heart but into his stomach, and then out of his body." (In saying this, Jesus declared all foods "clean.")

20 He went on: "What comes out of a man is what makes him 'unclean.'"

21 For from within, out of men's hearts, come evil thoughts, sexual immorality, theft, murder, adultery,

22 greed, malice, deceit, lewdness, envy, slander, arrogance and folly.

23 All these evils come from inside and make a man 'unclean.'"

11월 18일 금요일

Mark 7:24~30

24 Jesus left that place and went to the vicinity of Tyre. He entered a house and did not want anyone to know it; yet he could not keep his presence secret.

25 In fact, as soon as she heard about him, a woman whose little daughter was possessed by an evil spirit came and fell at his feet.

26 The woman was a Greek, born in Syrian Phoenicia. She begged Jesus to drive the demon out of her daughter.

27 "First let the children eat all they want," he told her, "for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oss it to their dogs."

28 "Yes, Lord," she replied, "but even the dogs under the table eat the children's crumbs."

29 Then he told her, "For such a reply, you may go; the demon has left your daughter."

30 She went home and found her child lying on the bed, and the demon gone.

11월 19일 토요일

Mark 7:31~37

31 Then Jesus left the vicinity of Tyre and went through Sidon, down to the Sea of Galilee and into the region of the Decapolis.

32 There some people brought to him a man who was deaf and could hardly talk, and they begged him to place his hand on the man.

33 After he took him aside, away from the crowd, Jesus put his fingers into the man's ears. Then he spit and touched the man's tongue.

34 He looked up to heaven and with a deep sigh said to him, "Ephphatha!" (which means, "Be opened!").

35 At this, the man's ears were opened, his tongue was loosened and he began to speak plainly.

36 Jesus commanded them not to tell anyone. But the more he did so, the more they kept talking about it.

37 People were overwhelmed with amazement. "He has done everything well," they said. "He even makes the deaf hear and the mute speak."

11월 20일 주일

Mark 8:1~10

- 1 During those days another large crowd gathered. Since they had nothing to eat, Jesus called his disciples to him and said,
- 2 "I have compassion for these people; they have already been with me three days and have nothing to eat.
- 3 If I send them home hungry, they will collapse on the way, because some of them have come a long distance."
- 4 His disciples answered, "But where in this remote place can anyone get enough bread to feed them?"
- 5 "How many loaves do you have?" Jesus asked. "Seven," they replied.
- 6 He told the crowd to sit down on the ground. When he had taken the seven loaves and given thanks, he broke them and gave them to his disciples to set before the people, and they did so.
- 7 They had a few small fish as well; he gave thanks for them also and told the disciples to distribute them.
- 8 The people ate and were satisfied. Afterward the disciples picked up seven basketfuls of broken pieces that were left over.
- 9 About four thousand men were present. And having sent them away,
- 10 he got into the boat with his disciples and went to the region of Dalmanutha.

11월 21일 월요일

Mark 8:11~26

- 11 The Pharisees came and began to question Jesus. To test him, they asked him for a sign from heaven.
- 12 He sighed deeply and said, "Why does this generation ask for a miraculous sign? I tell you the truth, no sign will be given to it."
- 13 Then he left them, got back into the boat and crossed to the other side.
- 14 The disciples had forgotten to bring bread, except for one loaf they had with them in the boat.
- 15 "Be careful," Jesus warned them. "Watch out for the yeast of the Pharisees and that of Herod."

16 They discussed this with one another and said, "It is because we have no bread."

- 17 Aware of their discussion, Jesus asked them: "Why are you talking about having no bread? Do you still not see or understand? Are your hearts hardened?
- 18 Do you have eyes but fail to see, and ears but fail to hear? And don't you remember?
- 19 When I broke the five loaves for the five thousand, how many basketfuls of pieces did you pick up?" "Twelve," they replied.
- 20 "And when I broke the seven loaves for the four thousand, how many basketfuls of pieces did you pick up?" They answered, "Seven."
- 21 He said to them, "Do you still not understand?"
- 22 They came to Bethsaida, and some people brought a blind man and begged Jesus to touch him.
- 23 He took the blind man by the hand and led him outside the village. When he had spit on the man's eyes and put his hands on him, Jesus asked, "Do you see anything?"
- 24 He looked up and said, "I see people; they look like trees walking around."
- 25 Once more Jesus put his hands on the man's eyes. Then his eyes were opened, his sight was restored, and he saw everything clearly.
- 26 Jesus sent him home, saying, "Don't go into the village."

11월 22일 화요일

Mark 8:27~38

- 27 Jesus and his disciples went on to the villages around Caesarea Philippi. On the way he asked them, "Who do people say I am?"
- 28 They replie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still others, one of the prophets."
- 29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 30 Jesus warned them not to tell anyone about him.
- 31 He then began to teach them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and that he must be killed and after three days rise again.

32 He spoke plainly about this, and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33 But when Jesus turned and looked at his disciples, he rebuked Peter. "Get behind me, Satan!" he said. "You do not have in mind the things of God, but the things of men."

34 Then he called the crowd to him along with his disciples and said: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35 For whoever want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e and for the gospel will save it.

36 What good is it for a man to gain the whole world, yet forfeit his soul?

37 Or what can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38 If anyone is ashamed of me and my words in this adulterous and sinful generation, the Son of Man will be ashamed of him when he comes in his Father's glory with the holy angels."

11월 23일 수요일

Mark 9:1~13

1 And he said to them, "I tell you the truth, some who are standing here will not taste death before they see the kingdom of God come with power."

2 After six days Jesus took Peter, James and John with him and led them up a high mountain, where they were all alone. There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3 His clothes became dazzling white, whiter than anyone in the world could bleach them.

4 And there appeared before them Elijah and Moses, who were talking with Jesus.

5 Peter said to Jesus, "Rabbi,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Let us put up three shelters--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6 (He did not know what to say, they were so frightened.)

7 Then a cloud appeared and enveloped them, and a voice came from the cloud: "This is my Son, whom I love. Listen to

him!"

8 Suddenly, when they looked around, they no longer saw anyone with them except Jesus.

9 As they were coming down the mountain, Jesus gave them orders not to tell anyone what they had seen until the Son of Man had risen from the dead.

10 They kept the matter to themselves, discussing what "rising from the dead" meant.

11 And they asked him, "Why do the teachers of the law say that Elijah must come first?"

12 Jesus replied, "To be sure, Elijah does come first, and restores all things. Why then is it written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much and be rejected?

13 But I tell you, Elijah has come, and they have done to him everything they wished, just as it is written about him."

11월 24일 목요일

Mark 9:14~29

14 When they came to the other disciples, they saw a large crowd around them and the teachers of the law arguing with them.

15 As soon as all the people saw Jesus, they were overwhelmed with wonder and ran to greet him.

16 "What are you arguing with them about?" he asked.

17 A man in the crowd answered, "Teacher, I brought you my son, who is possessed by a spirit that has robbed him of speech.

18 Whenever it seizes him, it throws him to the ground. He foams at the mouth, gnashes his teeth and becomes rigid. I asked your disciples to drive out the spirit, but they could not."

19 "O unbelieving generation," Jesus replied, "how long shall I stay with you? How long shall I put up with you? Bring the boy to me."

20 So they brought him. When the spirit saw Jesus, it immediately threw the boy into a convulsion. He fell to the ground and rolled around, foaming at the mouth.

21 Jesus asked the boy's father, "How long has he been like this?" "From childhood," he answered.

22 "It has often thrown him into fire or water to kill him. But if you can do anything, take pity on us and help us."

23 "If you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24 Immediately the boy's father exclaimed, "I do believ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25 When Jesus saw that a crowd was running to the scene, he rebuked the evil spirit. "You deaf and mute spirit," he said, "I command you, come out of him and never enter him again."

26 The spirit shrieked, convulsed him violently and came out. The boy looked so much like a corpse that many said, "He's dead."

27 But Jesus took him by the hand and lifted him to his feet, and he stood up.

28 After Jesus had gone indoors, his disciples asked him privately, "Why couldn't we drive it out?"

29 He replied,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11월 25일 금요일

Mark 9:30~37

30 They left that place and passed through Galilee. Jesus did not want anyone to know where they were,

31 because he was teaching his disciples. He said to them, "The Son of Man is going to be betrayed into the hands of men. They will kill him, and after three days he will rise."

32 But they did not understand what he meant and were afraid to ask him about it.

33 They came to Capernaum. When he was in the house, he asked them, "What were you arguing about on the road?"

34 But they kept quiet because on the way they had argued about who was the greatest.

35 Sitting down, Jesus called the Twelve and said, "If anyone wants to be first, he must be the very last, and the servant of all."

36 He took a little child and had him stand among them. Taking him in his arms, he said to them,

37 "Whoever welcomes one of these little children in my name welcomes me; and whoever welcomes me does not welcome me but the one who sent me."

11월 26일 토요일

Mark 9:38~50

38 "Teacher," said John, "we saw a man driving out demons in your name and we told him to stop, because he was not one of us."

39 "Do not stop him," Jesus said. "No one who does a miracle in my name can in the next moment say anything bad about me,

40 for whoever is not against us is for us.

41 I tell you the truth, anyone who gives you a cup of water in my name because you belong to Christ will certainly not lose his reward.

42 "And if anyone causes one of these little ones who believe in me to sin, it would be better for him to be thrown into the sea with a large millstone tied around his neck.

43 If your hand causes you to sin, cut it off.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life maimed than with two hands to go into hell, where the fire never goes out.

44

45 And if your foot causes you to sin, cut it off.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life crippled than to have two feet and be thrown into hell.

46

47 And if your eye causes you to sin, pluck it out.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the kingdom of God with one eye than to have two eyes and be thrown into hell,

48 where "their worm does not die, and the fire is not quenched."

49 Everyone will be salted with fire.

50 "Salt is good, but if it loses its saltiness, how can you make it salty again? Have salt in yourselves, and be at peace with each other."

11월 27일 주일

Mark 10:1~12

- 1 Jesus then left that place and went into the region of Judea and across the Jordan. Again crowds of people came to him, and as was his custom, he taught them.
- 2 Some Pharisees came and tested him by asking, "Is it lawful for a man to divorce his wife?"
- 3 "What did Moses command you?" he replied.
- 4 They said, "Moses permitted a man to write a certificate of divorce and send her away."
- 5 "It was because your hearts were hard that Moses wrote you this law," Jesus replied.
- 6 "But at the beginning of creation God 'made them male and female.'"
- 7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 8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So they are no longer two, but one.
- 9 Therefore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let man not separate."
- 10 When they were in the house again, the disciples asked Jesus about this.
- 11 He answered,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and marries another woman commits adultery against her.
- 12 And if she divorces her husband and marries another man, she commits adultery."

11월 28일 월요일

Mark 10:13~31

- 13 People were bringing little children to Jesus to have him touch them, but the disciples rebuked them.
- 14 When Jesus saw this, he was indignant. He said to them,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and do not hinder them, for the kingdom of God belongs to such as these.
- 15 I tell you the truth, anyone who wi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little child will never enter it."
- 16 And he took the children in his arms, put his hands on them and blessed them.

- 17 As Jesus started on his way, a man ran up to him and fell on his knees before him. "Good teacher," he asked,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 18 "Why do you call me good?" Jesus answered. "No one is good--except God alone.
- 19 You know the commandments: 'Do not murder,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steal, do not give false testimony, do not defraud,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 20 "Teacher," he declared, "all these I have kept since I was a boy."
- 21 Jesus looked at him and loved him. "One thing you lack," he said. "Go, sell everything you have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Then come, follow me."
- 22 At this the man's face fell. He went away sad, because he had great wealth.
- 23 Jesus looked around and said to his disciples, "How hard it is for the rich to enter the kingdom of God!"
- 24 The disciples were amazed at his words. But Jesus said again, "Children, how hard it i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 25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 26 The disciples were even more amazed, and said to each other, "Who then can be saved?"
- 27 Jesus looked at them and said,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no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 28 Peter said to him, "We have left everything to follow you!"
- 29 "I tell you the truth," Jesus replied, "no one who has left home or brothers or sisters or mother or father or children or fields for me and the gospel
- 30 will fail to receive a hundred times as much in this present age (homes, brothers, sisters, mothers, children and fields--and with them, persecutions) and in the age to come, eternal life.
- 31 But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and the last first."

11월 29일 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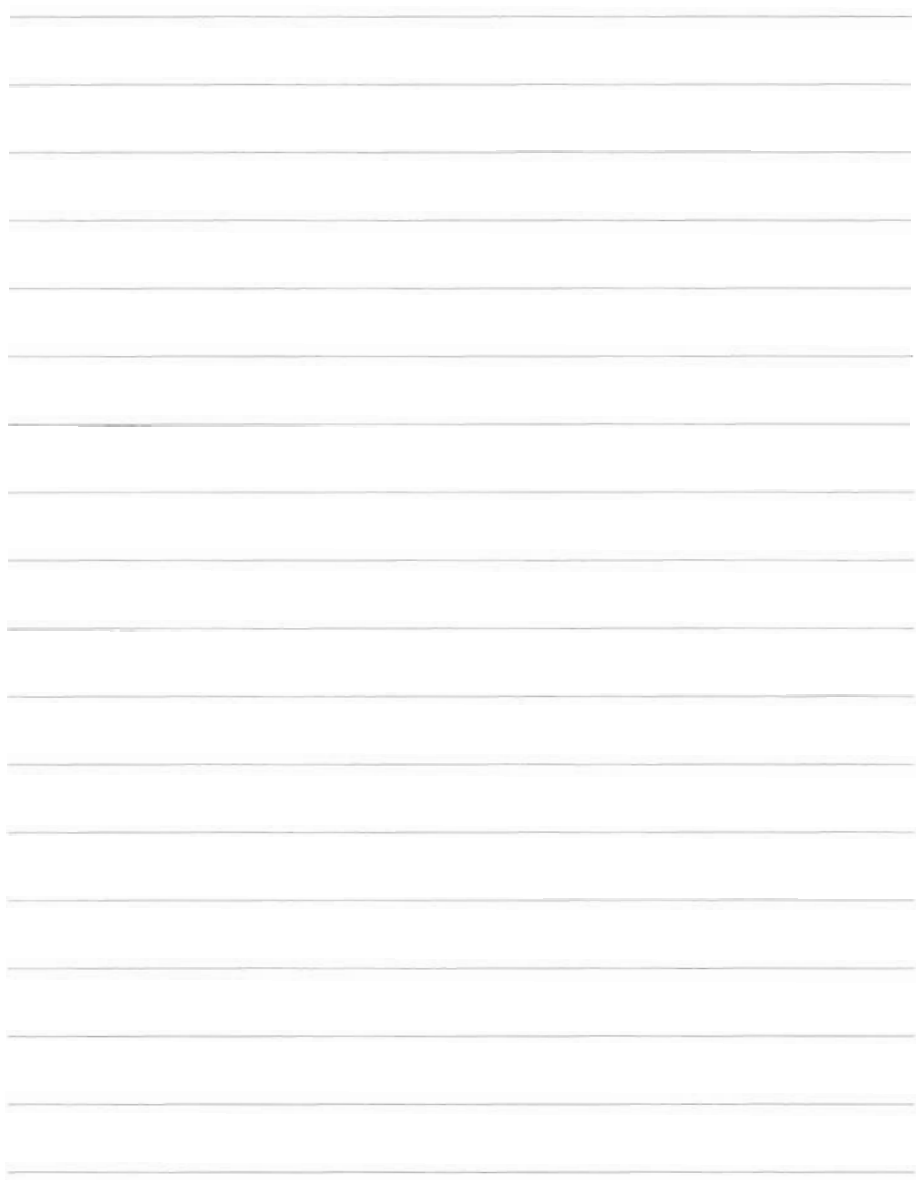
Mark 10:32~45

- 32 They were on their way up to Jerusalem, with Jesus leading the way, and the disciples were astonished, while those who followed were afraid. Again he took the Twelve aside and told them what was going to happen to him.
- 33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he said, "and the Son of Man will be betrayed to the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They will condemn him to death and will hand him over to the Gentiles,
- 34 who will mock him and spit on him, flog him and kill him. Three days later he will rise."
- 35 Then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came to him. "Teacher," they said, "we want you to do for us whatever we ask."
- 36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he asked.
- 37 They replied, "Let one of us sit at your right and the other at your left in your glory."
- 38 "You don't know what you are asking," Jesus said. "Can you drink the cup I drink or be baptized with the baptism I am baptized with?"
- 39 "We can," they answered. Jesus said to them, "You will drink the cup I drink and be baptized with the baptism I am baptized with,
- 40 but to sit at my right or left is not for me to grant. These places belong to those for whom they have been prepared."
- 41 When the ten heard about this, they became indignant with James and John.
- 42 Jesus called them together and said, "You know that those who are regarded as rulers of the Gentiles lord it over them, and their high officials exercise authority over them.
- 43 Not so with you. Instead, whoever wants to becom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 44 and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slave of all.
- 45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11월 30일 수요일

Mark 10:46~52

- 46 Then they came to Jericho. As Jesus and his disciples, together with a large crowd, were leaving the city, a blind man, Bartimaeus (that is, the Son of Timaeus), was sitting by the roadside begging.
- 47 When he heard that it was Jesus of Nazareth, he began to shout,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 48 Many rebuked him and told him to be quiet, but he shouted all the more,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 49 Jesus stopped and said, "Call him." So they called to the blind man, "Cheer up! On your feet! He's calling you."
- 50 Throwing his cloak aside, he jumped to his feet and came to Jesus.
- 51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Jesus asked him. The blind man said, "Rabbi, I want to see."
- 52 "Go," said Jesus, "your faith has healed you." Immediately he received his sight and followed Jesus along the road.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충현의 만나 2016년 11월

Copyright© 2016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편집인 | 권명옥, 집필진 | 김용은 이범구 이성환

발행처 | 충현교회 교육훈련원(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품]